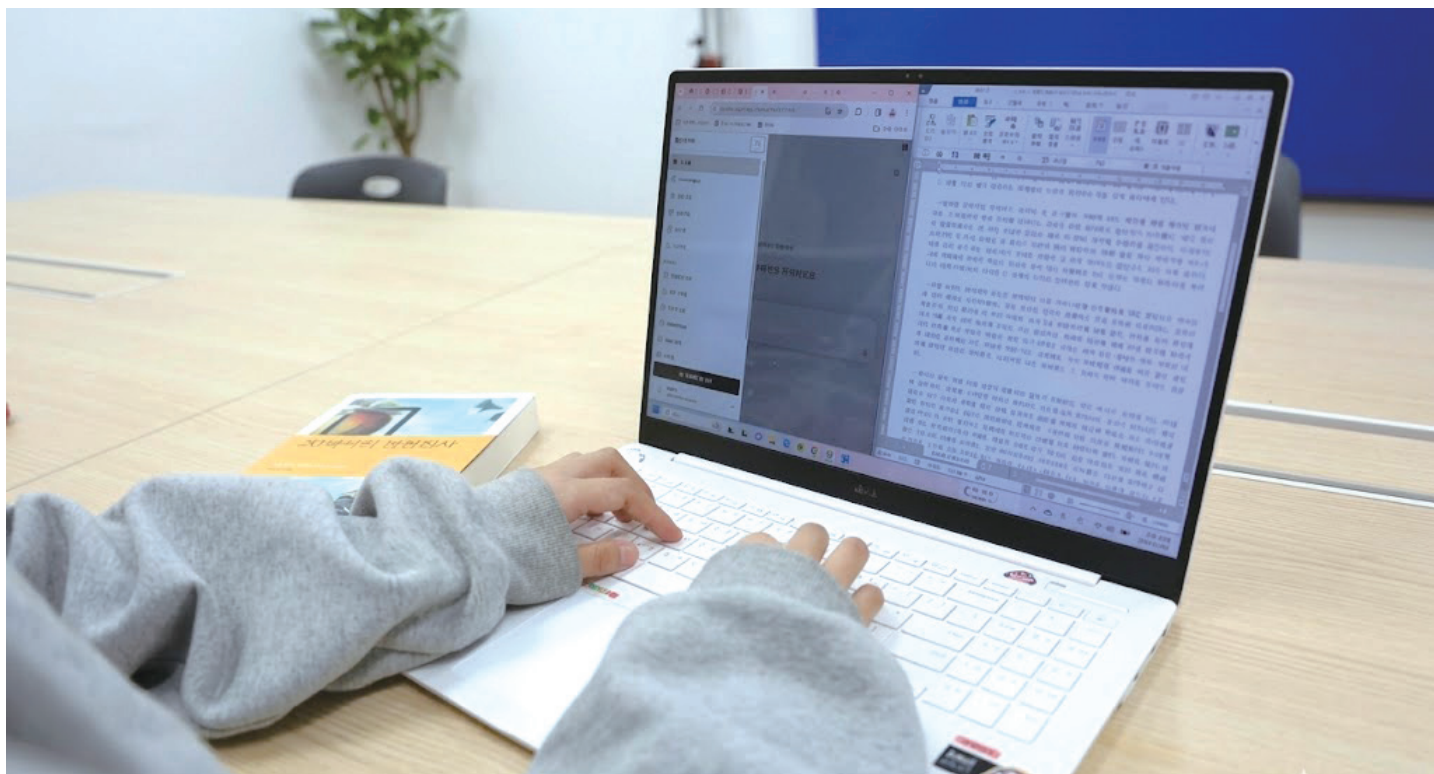


우리학교 승마부 이동화(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마술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다. 우리신문은 이 선수를 만나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 과정과 향후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관리비는 월세에 더해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키우지만, 대학가 원룸은 산정 기준과 사용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깜깜이 관리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신문은 대학가 원룸의 관리비 실태를 살펴보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짚어봤다.

대학주보



생성형 AI가 과제 수행 과정에 활용되면서 학생의 결과물만으로 실제 이해도와 학습 과정을 평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사진=서라수 기자)

AI가 만든 결과물, 학생 실력은 어디에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AI가 들어온 교실

① 총론

생성형 AI는 대학의 과제와 시험, 수업 방식을 바꾸고 있다. 학생이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이 달라지자 이를 평가하는 방법도 변하고 있다. 수업 안에서 질문하고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졌다. 우리신문은 기획 연재 <AI가 들어온 교실>을 통해 ① 글쓰기·논증 ② 계산·코딩·문제 해결 ③ 예술·창작 ④ 실험·현장에서 AI가 바꾼 모습을 살펴본다. 아울러 AI를 수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사례와 학내 가이드라인, 교수·학생의 대응을 함께 살펴며 AI 시대 대학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심층적으로 짚는다.

과제에 들어온 AI 결과물과 이해 사이 간극

생성형 AI는 대학생의 과제 수행 과정 전반에 걸쳐 깊숙히 자리

잡고 있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 인공지능연구소(HAI)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6』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대학생 1만 1,706명을 대상으로 한 국제 조사에 참여한 한국 대학생 가운데 84%는 대학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우리신문이 만난 학생들은 개념 이해와 자료 조사, 아이디어 구상, 글쓰기와 편집 등에 AI를 활용했다. 강지안(조리&푸드디자인학 2024) 씨는 자료 검색과 아이디어 정리, 개요 작성에 AI를 활용한다. 강 씨는 “AI를 사용하기 전보다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지 방향성이 확실히 잡힌다”면서도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너무 정교한 문장 표현이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해민(응용통번역학 2023) 씨는 평소 글을 다 쓴 뒤 AI를 활용한다. 문장의 흐름과 표현을 점검하고 장단점을 묻는다. AI가 제시한 문장을 그대로 쓰지는 않는다. 박 씨는 “AI가 써준 글은 매끄럽지만 사실

관계가 부정확하거나 지나치게 수려한 단어를 사용할 때가 있다”며 “거의 항상 사실관계를 다시 살펴보고 문장을 고친다”고 말했다.

교수 입장에서선 결과물만으로 학생의 노력과 이해 정도를 구분하기 어려워졌다. AI를 활용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결과물을 빠르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국어국문학과 정기인(현대문학) 교수는 “2024학년도 학생들이 제출했던 4~5개 레포트가 첫 문장이 완전히 똑같았던 경험 때문에 한동안 보고서 과제를 중단했다”며 “이번 학기에는 다시 보고서를 내되 대면 첨삭을 병행한다”고 설명했다.

결과물만으로 부족해진 평가 시험과 평가 방식도 변한다

최근 교수들은 과제와 평가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사학 민유기(역사학) 교수는 “AI를 활용한 과제들의 완성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학생 간 변별이 어려워졌다”며 이에 “과제 배점을 줄이고 지필 중간·기말시험 비중

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시험에서도 AI 사용을 둘러싼 논란이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연세대에서 약 600명이 듣는 수업 ‘자연어 처리(NLP)와 챗GPT’의 비대면 중간시험 과정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적발된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0점 처리됐다. 같은 기간 서울대는 ‘통계학실습’이라는 교양 과목의 대면 중간시험에서 AI 사용이 적발되어 재시험이 결정됐으며, 고려대 또한 공과대학의 한 전공수업에서 반복 응시 및 AI 부정행위 정황 등이 발견돼 재시험을 결정했다. AI 사용을 잡아내는 문제를 넘어 학생의 실제 역량을 무엇으로 확인할 것인지가 새로운 과제가 된 것이다.

우리학교는 지난 1월 교수학습개발원에서 배포한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을 통해 평가 시에 최종 결과물만 평가하기보다 프롬프트와 아이디어 발전 과정, 결과물 검증과 수정 과정 등 학습 과정을 함께 살펴도록 권고하고 있다.

3면에 계속 →

선택권 넓어진 경영대, 수강난 대책은 어떻게

김재희 기자 jaylove0413@khu.ac.kr

김정우 기자 jwkim012506@khu.ac.kr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수강신청 때마다 전공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리신문은 지난 호에서 이런 어려움을 미디어학과 중심으로 살펴봤다. 이번 호에서는 경영대학의 계열제 도입과 다전공 의무이수제도 도입으로 인한 교원·강의실 부족 문제를 다룬다.

전공기초 일부는 자동 배정 나머지 과목은 직접 신청

경영대학은 올해부터 경영학과와 회계·세무학과를 통합한 ‘경영회계 계열’로 신입생을 선발했다. 빅데이터응용학과는 이전과 같이 별도로 선발한다. 경영회계계열 신입생 356명은 1학년 때 두 학과의 전공기초를 이수한 뒤, 2학년에 진학하며 두 학과 중 한 곳을 선택하게 된다.

경영대학 신입생들은 A부터 D까지 네 개 반으로 나뉜다. 경영대학은 각 반에 전공기초 4과목 가운데 2과목을 자동 배정하고 있다. 이번 학기에는 A·B반에 경영학원론과 회계원리, C·D반에 책임경영과 경영통계학이 배정됐다. 학생들은 배정받지 않은 나머지 2과목을 듣기 위해 별도로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이같이 별도로 학생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전공기초 강좌는 이번 학기 총 19개 강좌 중 12개로, 수강 정원은 총 854명이다.

문제는 여기에 경영대학 다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수요도 몰려 정작 경영회계계열 학생의 신청이 어렵단 점이다. 경영대학 전공기초 3과목 경영학원론, 회계원리, 경영통계학이 경영대 내 학과들의 다전공 이수를 위한 선수강 과목이다. 854석 가운데 다전공 예정자도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된 좌석은 465석으로 약 54%다.

2면에 계속 →

2 종합

계열제 · 다전공 확대 속 강좌 · 교원 부족

1면에서 계속 →

이 때문에 배정 과목 외에 수강해야 하는 전공 강좌를 듣지 못한 학생도 있다. 김찬섭(경영회계계열 2026) 씨는 “이번 학기에 관리회계1을 신청하지 못해 교양을 하나 더 듣게 됐고, 장학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며 “수강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여기에다가 올해부터 시행 예고된 다전공 의무이수제에 따른 수요 변화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학장은 “다전공 수요의 증가로 인해 경영대학 소속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을 이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다전공 학생들의 학습 기회를 확대하는 것과 경영대학 소속 학생들의 안정적인 전공 이수권을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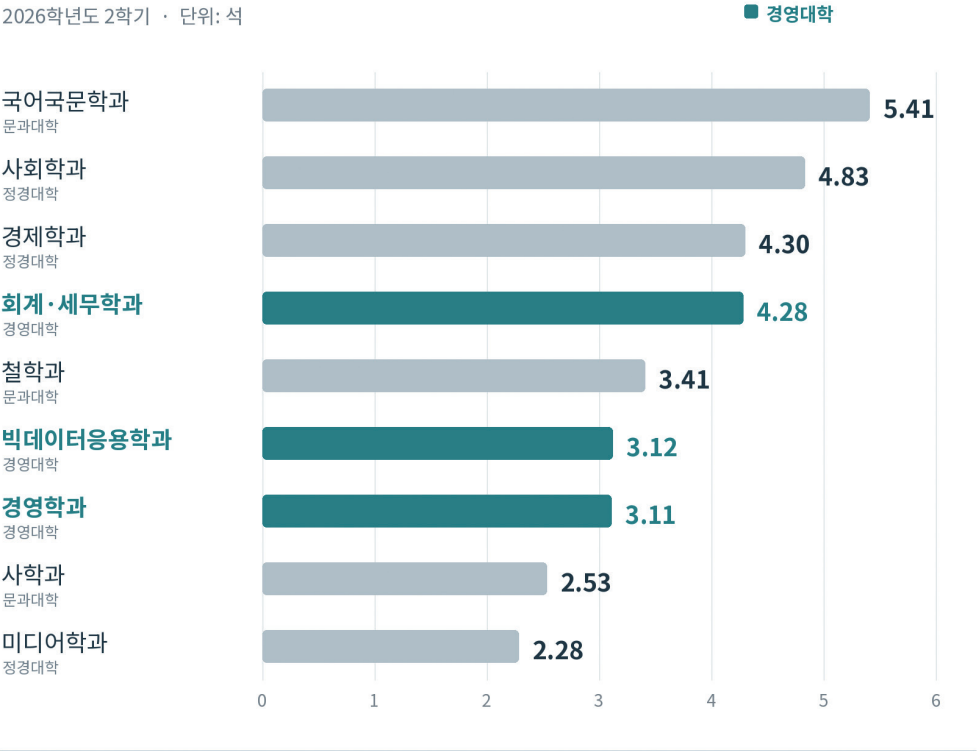
2학년부터 갈리는 전공 여건
경영학과, 좌석도 과목도 부족

전공 기초 일부 과목이 자동으로 배정되는 1학년과 달리, 2학년부터는 모든 전공 과목을 직접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수강신청이 더욱 어려워진다. 우리신문은 올해 2학기 기준으로 재학생 1인당 전공 좌석을 산출해봤다. 전공 강좌의 수강 정원 합계를 재학생 수로 나누어 계산했다. 그 결과, 2~4학년 재학생 1인당 전공 좌석은 경영학과 3.11석, 빅데이터응용학과 3.12석, 회계·세무학과 4.28석으로 나타났다. 우리신문이 산출한 문과대학·정경대학 6개 학과(미디어학, 사회학, 경제학, 철학, 사학, 국어국문학)의 1인당 전공 좌석 평균은 3.79석이다. 이 중 가장 많은 1인당 전공 좌석을 확보한 학과는 국어국문학과로, 5.41석이었다.

게다가 경영학과 31개 강좌 가운데

학과별 1인당 전공 좌석

2026학년도 2학기 · 단위: 석



산식 전공 강좌 수강 정원 합계 ÷ 재학생 수
경영대학은 2~4학년 기준 | 자료: 대학주보 자체 집계

이번 학기 경영학과 재학생 1인당 전공 좌석은 3.11석으로, 앞서 조사한 문과대·정경대 6개 학과의 단순평균인 3.79석을 밑돌았다.

데 20개는 분반이 하나뿐이다. 다른 수업과 시간이 겹치거나 정원이 차면 다음 학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경영학과 학생 A씨는 “전공과목의 분반이 하나뿐이라 해당 수업을 듣기 위해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달아 수업을 듣게 됐다”며 “개설 강좌가 늘어나 시간표를 짤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좌 정원은 줄어든다. 경영학과와의 이수학년별 전공 좌석은 2학년 2,024석에서 3학년 1,063석, 4학년 477석으로 감소한다. 반면 재학생은 2학년 345명, 3학

년 365명, 4학년 436명으로 늘어난다. 회계·세무학과는 4학년 대상 전공이 1개뿐이며, 정원은 60석에 그친다. 상위 학년 학생이 하급 학년 과목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미 수강한 과목은 다시 들을 수 없어 선택지는 줄어든다.

전공 확대 막는 교원 부족
교육 수요에 맞춘 정원 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전공 강좌 수를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미 교수 1인당 맡는 학생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경영대학 내 학과의 전공 강좌별 수강 정원을 합산해 담당 교수 수로 나누면, 교수 한 명이 맡는 학생 규모는 ▲경영학과 97.9명 ▲회계·세무학과 94.4명 ▲빅데이터응용학과 77.6명이다.

경영통계학을 담당하는 정선호 교수는 강좌 당 80명을 가르치고 있다. 정 교수는 “실습과 발표를 진행하고 싶어도 80명이니까 엄두가 안 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보다 교수 수가 줄어든 반면 교육을 담당해야 할 학생 규모는 줄지 않았다”며 “안정적인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전공 강좌 부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교수 충원도 주요 해결 과제인 셈이다. 박 학장은 “교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충분치 않는 상황이다”라며 “학생 규모와 교육수요에 상응하는 교원 확보는 교육의 질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본부와도 적극 협의해 교원 확충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수 국제캠 교무처장은 “충분히 훌륭한 교수님을 모셔야 하기에 교수 채용은 신중하게 결정한다”며 “학과가 요청한 채용 분야와 학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분야 사이에 조정이 이뤄지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경영회계계열 신입생
응답자 65.6% 경영학과 희망

경영대학 내에서도 경영학과는 경영회계계열 신입생들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대학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5일까지 경영회계 계열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가수요 조사의 중간 집계에서는 경영학과를 희망한 응답이 65.6%, 회계학과가 28.7%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356명 중 약 234명이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경영학과는 단과대 세 학과 중 1인당 전공 좌석이 가장 적다. 여기에 내년부터 다전공 의무이수대상 학년이 한 학년씩 쌓이면 경영학과와의 전공 수업 신청은 더욱 어려워진다. 이와 관련해 박 학장은 학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좌에 추가 분반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학장은 “특정 학과에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집중되는 경우 추가 분반이나 강좌 조정 등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의 성공 여부는 행정 편의보다 학생들이 충분히 탐색하고 적성과 희망에 따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달려 있다”며 “학생의 선택이 강좌 부족 때문에 제약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희대학교 DX추진단과 함께하는 디지털·AI 전환의 여정

DX추진단 공식 홈페이지 dx.khu.ac.kr

※ 본 이미지는 경희대학교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챗쿠)를 활용하여 제작했습니다

“과제 결과물은 좋은데, 이해하고 있는지는 의문”

1면에서 계속 →

AI는 과제·시험 수행 시에만 사용되지 않는다. 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고 질문하는 과정에도 사용되고 있다. 박 씨는 “연구가 많이 축적된 분야의 경우 교수에게 묻기 전에 AI를 활용하기도 한다”며 “특히 수업 후 교수에게 질문할 기회가 부족할 때 AI를 사용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어 논문은 대부분 직접 읽지만 외국어 논문의 경우 필요한 문맥을 중심으로 읽고 AI를 보조적으로 활용한다고 설명했다.

교수자들은 AI를 수업에서 어떻게 다룰지 고민하고 있다. 우리학교 가이드라인은 교과목 목적에 따라 AI 활용 수준을 금지형·제한허용형·적극통합형으로 정하도록 한다. AI 사용 자체를 일괄적으로 허용하거나 금지하기보다 수업 목표에 따라 활용 범위를 정하도록 한 것이다.

교실의 변화 기준을 만드는 논의로

대학은 이런 흐름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중이다. 우리학교 역시 지난 1월 ‘AI 활용 교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서울 주요 9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을 살펴본 결과, 학교 차원의 ‘AI 활용 가이드라인’은 존재한다. 가이드라인은 대체로 AI를 학습과 연구의 보조 도구로 규정한다. AI가 만든 결과물의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출처 표기와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는 원칙도 담겼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지난 4월 ‘논술 과제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했다.

(사진=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 제공)

하지만 대학 차원의 공통 가이드라인은 허용 범위와 평가 방식을 담당 교원이 수업별로 정하도록 한다. 수업 목적에 따라 문장 다듬기, 번역, 자료 요약과 같은 활용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과제의 목적과 전공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AI가 교실에 이미 들어온 상황에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나선 사례도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이 만난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지난 4월 ‘논술 과제에서 AI 활용을 금지해야 한다’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열고 학과 환경에 맞춘 AI 사용법을 논의했다.

토론 이후에는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과제 유형별 AI 활용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학과에서 자주 제출하는 요약, 독후감, 연구계획서 등 과제를 중심으로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채현(경상국립대사회학 2024) 학생회장은 “수업은 열심히 안 들은 것 같은데 글은 잘 썼고, 수업은 열심히 들었는데 글이 어려운 경우

가 있었다”며 “평가자인 교수님들이 곤란해 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보였다”고 설명했다. 토론 참여자 이현진(경상국립대사회학 2024) 씨는 “과제물은 잘 썼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자기 생각이 진짜 있는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경상국립대 사회학과 학생들은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대해 “AI를 그냥 쓰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토론과 TF를 거치면서 AI 활용 자체에 대한 이해가 많이 올라갔다”고 입을 모았다. AI는 이미 교실

에 들어왔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를 단순히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데 있지 않다.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직접 해야 하며, 그 기준을 누구와 함께 만들어갈 것인지 묻는 일이 남았다. 김 학생회장은 “이 과정이 당연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우리신문은 다음 회차에서 글쓰기와 논증을 시작으로 계산과 코딩, 예술과 창작, 실험과 현장·전문 판단에서 이 질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DX추진단의 경희대학교 디지털·AI 전환 사업을 소개합니다!



생성형 AI 플랫폼 ChatKHU (챗쿠)

chat.khu.ac.kr

교육·연구·행정에 생성형 AI를 안전하고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멀티 LLM 기반의 생성형 AI 플랫폼입니다. 여러 최신 AI 모델을 선택할 수 있으며 챗봇 제작부터 MCP 연동은 물론, 다양한 에이전트 기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크레딧 한도를 상향해 매월 4,000 크레딧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 AiKHU (아이:쿠)

aikh.khu.ac.kr

학업과 업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 중심의 No-Code 생성형 AI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입문, 활용, 심화 총 3단계로 구성된 강좌와 함께 실습 과제, 강의노트 등을 활용해 자신에게 필요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AI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학생성장플랫폼 Grow-KHU (그로우쿠)

대학생활 전 주기 데이터를 통합·연계해 ‘전공 탐색·진로 설계·활동 관리·역량 개발’ 과정을 학생이 스스로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생 중심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친화적 UI/UX를 기반으로 대학 내 공지사항부터 전공 선택, 현장실습, 대외활동 관리까지 한곳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사 챗봇 AskKHU (애스쿠)

askhu.khu.ac.kr

경희대학교 학사 정보 안내용 AI 챗봇으로 현재 시범 운영 중입니다. 24시간 다국어 지원을 기본으로, 반복적인 단순 문의 응대와 기본 학사 정보 안내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학사 정보에 관한 질문이 생기면 언제든지 AskKHU와 대화하며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6 KHU AI Challenge”: 학생의 도전과 창의 AI 활용 경진대회 & 교직원 AI 활용과 혁신 AI 활용 성과발표회

▶ 출품 부문: AI 문제해결 솔루션 / AI 창작콘텐츠

▶ AI 활용 경진대회 접수: ~ 10월 12일 월요일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확인 →)

▶ 우수작 시상·발표: 11월 19일 목요일 15시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로비 및 피스홀



4 기획

같은 후마, 다른 결정... 양캠 조정 체계는 어디에 '캠퍼스별 특성에 맞게 거버넌스 분리' 주장도

이서현 기자 is4203850@khu.ac.kr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2부

- ⑤ 교수 · 과목별 편차
- ⑥ 교육과정 개편
- ⑦ 평가방식
- ⑧ 거버넌스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이번 2부 4회차에선 양캠 후마를 잇는 ‘거버넌스’에 관해 다룬다.

후마는 양캠 공통으로 하나의 교육체계 아래 놓여있지만 평가방식과 교과 운영에서는 캠퍼스별 차이가 나타난다. 교양과목 절대평가 도입 논의에서도 서울캠은 도입에 적극적이었던 반면, 국제캠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더불어 필수교과 ‘빅뱅에서 문명까지(빅문)’는 서울캠에서 공통 교과와 팀티칭을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국제캠에서는 교수마다 자율 커리큘럼을 선택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지난 회차에서는 이 같은 차이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두 캠퍼스가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릴 때 이를 논의하고 조정하는 구조를 추적했다. 취재 결과 양캠 간 소통 자체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교과별 협의와 캠퍼스 내부 회의는 현재도 이뤄지고 있었다. 하지만 양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 체계는 뚜렷하지 않았다.

교과별 소통 이어지지만 양캠 정기 협의 구조는 없어

현재 양캠 전체를 조정하는 공식적인 정기 협의체는 없는 상태다. 서울캠 정복철(정치학) 학장은 “공식적인 체계가 없다”며 “필요할 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는 방식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양캠 간 회의 역시 많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교과 단위의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정화영(컴퓨터공학) SW분과 PD교수는 “국제캠 담당 교수와 현안이 있을 때마다 전화와 메시지 등으로 논의한다”고 말했다. 국제캠 여승주(언어학) 대학영어 PD교수는 “국제캠 PD들은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연다”며 “양캠의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캠 PD와 별도로 협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평가방식처럼 의견 차이가 큰 사안은 학장과 부학장 간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정보 교류가 줄면서 앞선 절대평가 전환 논의에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국제캠 이은정(비교문학) 교수는 절대평가를 실제로 시행할 교수들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준비할 과정이 필요했지만, 당시에는 “사전 인식, 준비 작업, 공유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서울캠 후마에서 논의됐던 걸 왜 우리한테 이렇게 명령식으로 하달하냐”는 반응도 있었다고 전했다.

국제캠 후마 학장이 올해 1월부터 공식적인 점은 소통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정복철 학장은 “한쪽 캠퍼스에서 책임 있는 협의 상대가 부재하면 양캠 간 회의를 이어가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제캠 후마 김성(물리학) 교수 또한 “과거에는 학장과 부학장 간 교류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조정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 역시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출범 초기엔 양캠 공동 운영 교수진 협력 · 대학장 역할 컸다

후마 출범 초기에는 양캠의 공동 논의가 지금보다 활발했다. 우선 양

캠 후마 교수진의 협력 의지가 컸다. 새로운 교과와 교재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던 상황에서 공동 워크숍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국제캠 이영식 전 학장은 “당시 서울과 국제의 설립위원들이 수시로 만나 교과와 교육과정을 함께 만들었다”며 “양캠 교수들이 이동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강남과 양재 등 중간 지점에서 회의를 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두고 “서울·국제가 이질감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양캠 후마를 지휘하는 대학장의 역할도 있었다. 초대 도정일 대학장은 후마 설립위원회 참여부터 초창기 후마 운영을 주도하며 양캠을 하나로 묶는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장과 양캠 학장이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회의체를 꾸리는 식이었다. 김진해 부학장은 대학장을 ‘부총장급’이라고 표현하며 “당시 문서와 행정 업무는 캠퍼스 학장이 맡고, 대학장은 설립 초기 주요 결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회고했다. 글쓰기 중핵교과를 가르치는 서울캠 고인환(국어국문학) 교수도 “대학장 아래 양캠 학장이 있었고 교과별 교수들도 함께 회의했다”며 초창기에는 공동 운영의 성격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초대 도정일 대학장이 사임한 이후 11년이 넘는 기간동안 대학장 선임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 교수는 “전체를 총괄하는 수장이 없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며 “현재는 양캠을 통합적으로 바라볼 책임 주체가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교육과정이 정착되면서 공동 워크숍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영식 전 학장은 “중핵교과처럼 공동 교육내용을 만들어야 하는 교과

지만 모든 교과가 같은 수준의 통합 운영을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교육과정이 정착되자 공동워크숍도 자연스럽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인사 현안서 갈라진 양캠 판단 공동 운영 동력까지 흔들

후마 교수진은 양캠 차이가 단순한 운영 차이를 넘어 내부 갈등으로 번진 요인으로 교원 인사 문제를 꼽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교원 신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된 건 2015년부터였다. 당시 우리신문은 후마가 비전임교원 일부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전환해달라고 대학본부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2017년부터 신분안정화계획이 시행되면서 문제는 양캠이 실제 전환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의 문제로 옮겨갔다.

서울캠 이기라(사회학) 교수는 “당시 유정원 서울캠 전 학장이 객원교수의 신분안정 필요성을 적극 제기했고, 대학본부와의 논의 끝에 별도의 교원 지위를 신설하는 대신 기존 비정년전임교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분안정화계획이 실제 시행되는 과정에서는 양캠의 대응이 달랐다. 이 교수에 따르면 당초 예상보다 이르게 비정년전임교원 TO가 배정되면서 서울캠은 먼저 전환 절차를 시작했지만 국제캠은 같은 시기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이후 국제캠에도 제한된 TO가 배정되면서 전환 여부와 절차를 둘러싼 내부 반발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고인환 교수 역시 당시 상황을 두고 “그쪽 학장의 생각이 다르고 이쪽 학장의 생각이 달랐다”며 신분안정화 문제를 둘러싼 양캠 수장의 판단 차이를 짚었다.

이 교수는 일부 교수들이 비정년전임 전환을 거부하자 회의체를 구성한 가운데 다른 교수들은 실제 전환에 지원하면서 갈등이 커졌고, 면접 과정에서는 피켓 시위까지 벌어졌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두고 “심각한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서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이후 함께 논의하고 움직이는 분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당시 국제캠 후마 학장이었던 국제캠 김성수(우주과학) 교무처장은 “객원교수의 비정년전임 전환 자체에는 크게 반대는 없었다”면서도 “당시 객원교원을 모두 전환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 일부만 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당시 우리신문은 양캠의 신분안정 계획이 “통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8년 6월 서울캠 후마 이영준 학장은 “국제캠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고, 국제캠은 중핵교과 객원교수만 우선 비정년전임교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다른 교과와의 형평성에 맞는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성수 당시 국제캠 후마 학장도 “중핵교과 교수들만 신분전환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다른 교과와 신분안정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큰 현안엔 공동기구 가동 평시 조정은 보직자에 의존

2017년 ‘후마니타스칼리지 재도약 특별TF’는 양캠 공동기구 운영에 실효성을 보인 대표 사례였다. TF에서 평가방식 전환과 교육방식·교과목 개편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후마 교양교육 혁신 방안’이 마련됐다. 이듬해 실행위원회에는 양캠 부총장과 교무처장, 후마 학장, PD 교수진 등이 참여했다. 재도약 과정은 후마가 큰 현안에서 논의가 필요할 때 양캠 공동기구를 구성하고 실제 제도 개편까지 이끌 수 있었음을 보여줬다. 하지만 이 조정 기능은 상설 구조로 이어지지 않았고, 현안이 끝난 뒤 양캠 협의는 다시 학장과 PD 등 기존 보직자의 소통에 의존했다. 최근에는 교육과정 개편같은 큰 현안에서까지 캠퍼스별로 별도 논의하는 방식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서울캠은 다음 교육과정 개편 TF를 통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깜깜이 예산’ · ‘줄어드는 전임’, 해결할 속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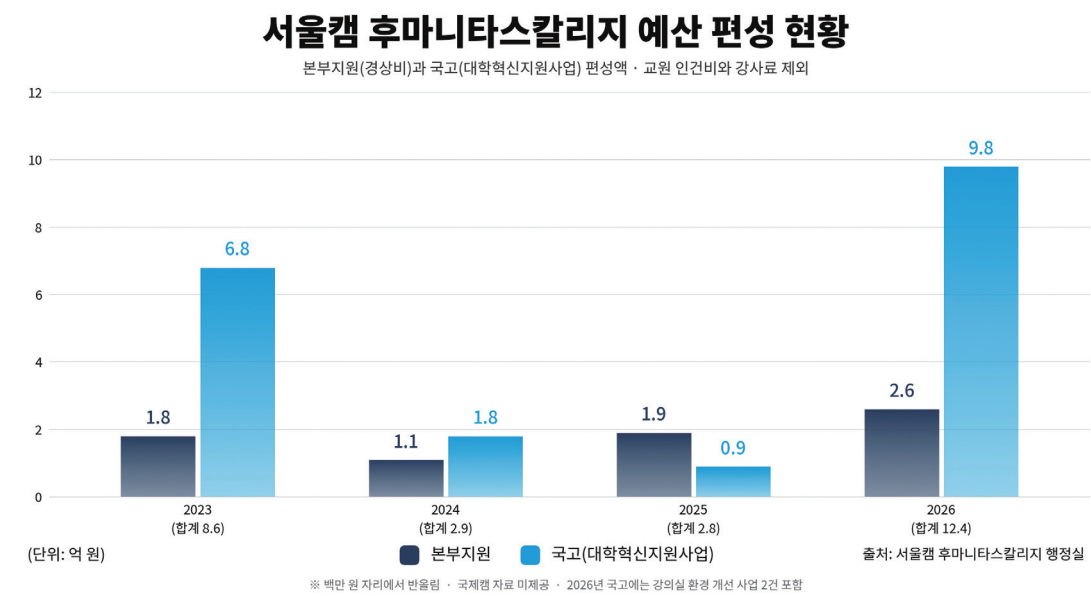
권도연 기자 khudy94@khu.ac.kr

창간 71주년 특별기획 후마니타스 15년을 묻다 2부

- ⑤ 교수 · 과목별 편차
- ⑥ 교육과정 개편
- ⑦ 평가방식
- ⑧ 거버넌스
- ⑨ 재정 · 인력

2011년 출범한 후마니타스칼리지(후마)는 “한국을 대표하는 교양 교육 모델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으며 구성원의 자부심으로 자리잡았다. 우리신문은 15년이 흐른 지금, 교양교육의 전범으로 불리던 후마가 설립 당시의 철학과 역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 되짚고자 한다. 2부 5회차에선 후마의 교육을 뒷받침하는 재정 · 인력 문제를 다룬다.

후마 특별기획과 관련해 취재하는 동안 후마 교수진은 대체로 ‘후마에 대한 지원 부족’을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5월, 154명이 응답한 우리신문의 후마에 대한 교수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하는 사안으로 ‘교원·강좌·예산 등 운영 여건’이라는 응답이 1위 (29.5%)를 차지했다. (관련기사: 교수들이 본 후마의 과제 ‘지원 회복’과 ‘양캠 소통’/대학주보 1761

호/2026.05.25.) 후마의 예산 구조와 교원 현황을 확인한 결과, 교수들이 말하는 재원·인력 부족은 실제로 후마 교육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정해진 몫 없이 건별로 신청해야 하는 예산 구조와 해마다 줄어드는 전임교원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

었다. 불확실한 지원 여건 속에서 새로운 교육을 기획하고 이끌어 갈 후마 내부의 동력도 함께 약해졌다.

자율예산 없는 후마 교육활동 뒷받침해 온 국고지원

후마는 일반 단과대학과 달리 소

속 학부생이 없기 때문에 학생 수에 따라 배정받은 돈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자율예산’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대신 후마 예산안은 매 학년도 본부 차원에서 편성되고 있다. 기획조정처 예산팀은 “후마는 자율예산이 아니므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 아니고, 사업별 예산요구를 접수받아 재정상황에 따라 중요도 등을 고려해 배정한다”고 밝혔다.

교원·교직원 인건비와 강사료는 해당 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본부가 별도로 지급한다. 국제캠 후마 행정실 정구승 실장은 “자율예산과 예산이 쓰이는 항목은 거의 비슷한데 형식만 다를 뿐”이라며 “편성된 예산안 외에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필요하면 본부에 별도로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강좌 개설 수 또는 대략적인 실험·실습비 윤곽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 규모가 편성된다”며 필수적인 운영 경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6면에 계속 →

4면에서 계속 →

서울캠 김진해(국어국문학) 부학장은 양캠 PD 전체가 처음부터 한 회의에 참여하면 인원이 많아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캠에서 먼저 TF를 꾸린 뒤 국제캠 부학장에게 연락했으며, 국제캠에서도 별도의 TF를 구성해 논의한 후 양캠이 함께 만나 공통분모와 이견을 확인하는 방식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협의가 실제 공동 조정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상설 구조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김 부학장은 취재 당시 국제캠 TF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황을 두고 “이제 그러면 또 나중에 가서 갈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후마 설립부터 지난 2022년까지 후마 소속이었던 자유전공학부 배재형(수학) 학부장도 설립 당시와 비교해 양캠의 ‘유기적 협업’이 약화되고 교육·행정 운영이 개별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은정 교수 역시 “양 캠퍼스가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교양교육 단위와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논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여승주 교수는 “현안이 생겼을 때만 만나는 방식보다 평시에 만나는 정기적인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2학기 국제캠 후마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채용 면접이 열린 멀티미디어관 513호 앞에서 중핵교과 교수회의 대표위원들이 채용 중단을 요구하며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대학주보 DB)

의견 엇갈려도 공동 결정 범위부터 정해야

이런 과정에서 양캠 공동 논의구조 마련을 위해 11년간 공식으로 비워둔 대학장을 선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우리신문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학칙 제78조에 따라 대학장 직위는 공식 직제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본부를 통해 후임 대학장이 장기간 선임되지

않은 배경과 현재 양캠의 이견을 조정하는 공식 주체를 물었으나, 총장실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교수진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는 시각도 있다. 이은정 교수는 “양캠 학장과 교양교육 관련 조직 등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해 부학장은 “대학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대학

장을 세운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캠 학장 간의 실질적인 소통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후마 거버넌스 체계를 캠퍼스별 특성에 맞게 분리하자는 의견도 나온다.

양캠 후마는 후마 출범부터 이어진 평가방식 전환에 대한 입장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절대평가 전환 논의가 서울캠 총학생회 주도로 이뤄졌을 때도 서울캠

은 우선 시행을, 국제캠은 충분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라는 평행선을 달렸다. 현 구조의 한계를 구성원들이 체감하게 된 셈이다.

서울캠 정복철 학장은 “왜 하나여야 하느냐”며 제도적으로는 같이 가되 캠퍼스 특성에 맞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봤다. 정화영 교수 역시 후마가 하나의 기관인 만큼 제도적 문제는 함께 갈 수밖에 없지만, 교과 내용은 캠퍼스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봤다. 김성 교수도 캠퍼스별 자율 운영 가능성을 인정했다. 다만 그 범위 역시 양캠의 협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캠퍼스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그 자체를 양캠이 먼저 합의해야 한다”며 자율 운영의 범위 역시 공동 논의를 통해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취재 결과, 양캠 후마의 관계가 ‘단절’된 것은 아니었다. 교과별 소통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 현안이 생기면 양캠 교수와 보직자가 만나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무엇을 함께 결정하고, 무엇을 각자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양캠 후마가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왔음을 확인했다.

후마 통합에 필요한 전제 조건은 공동 운영의 범위와 캠퍼스별 자율성을 함께 정할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6 기획

국고 사업 수주 동력 약화 · 매년 축소되는 전임교원

5면에서 계속 →

실제로 서울캠 후마 행정실 자료에 따르면 본부지원 예산은 지난해 약 1억 8천에서 올해 약 2억 6천으로 오히려 늘었다. 국제캠 예산은 행정실 측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했다.

이와 별개로 교수 워크숍과 학생 참여 프로그램 등에는 국고사업 재원이 활용돼 왔다. 실제로 우리학교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 연속으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총 약 171억 원을, 또 지난 2011년에는 후마 출범과 함께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ACE)’에 선정돼 2015년 2월까지 총 약 1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일부가 후마 관련 사업에 투입됐다.

교양학부시절부터 함께 해 국제캠 후마 부학장직까지 지낸 배재형(수학) 자유전공학부장은 당시 지원받은 국고가 ‘인간의가치탐색’, ‘시민교육’, ‘우리가사는세계’ 등 교과 운영과 교수 워크숍을 비롯한 각종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배 학부장은 “물론 지원 금액이 전부 후마에 투입된 건 아니지만, 후마에 꽤 많이 배분됐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큰 부분 차지했던 국고사업
따내려는 내부 동력 약해져

자율예산이 없는 후마에게 국고사업은 경상비 외의 교육활동을 꾸릴 수 있는 가장 큰 통로다. 실제로 서울캠 후마의 최근 4년(2023~2026년) 예산 편성액 26억 6,897만 원 가운데 약 73%(19억 3,786만 원)가 국고(대학혁신지원사업)였다. 국고사업 여건이 달라지면 후마가 할 수 있는 교육활동의 폭도 함께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출범 초기 후마는 국고사업 제안서에서 앞세울 만한 교육모델이었다. 국제캠 후마 초대 학장을 지낸 이영식(응용화학) 교수는 “예전에는 ACE 사업 등 국고 사업에 지원할 때 교양 교육을 후마처럼 한다고 계획서에 쓰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배 학부장도 “후마의 모델이 사업에 선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ACE 사업 소개 페이지에는 ‘경희는 후마니타스칼리지와 전공 간 융복합 교육, 몰입형 기숙 교육 프로그램, 지구사회봉사단 활동 등이 (사업 선정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기재돼 있다.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여러 대학이 후마와 비슷한 교양교육 모델을 내놓으면서 제안서에서 후마만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어려워졌다. 이 교수는 “지금은 다른 학교들이 후마를 다 벤치마킹해서 제안서 상으로는 차별성을 보이기 쉽지 않다”며 “사업을 따낼 때 전보다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후마 내부에서 국고사업을 따내려는 동력 자체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과거 후마에 몸담았던 한 교수는 국고사업 예산은 각 부서가 연초에 업무 추진 계획을 세우고, 사업 제안서를 내야 심사를 통해 배정받을 수 있는데, 최근에는 후마에서 이런 제안이 예전만큼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캠 김진해 부학장 역시 예산 탓만 할 수는 없다고 봤다. 김 부학장은 “예산 때문에 뭘 못한다고 말하는 건 핵심을 벗어난 얘기”라며 “돈이 없어도 잘 할 수 있고, 돈이 넘쳐나도 못 할 수 있는데 지금 후마는 돈이 넘쳐도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달라진 지원 여건
현장에서는 ‘깜깜이 계획’

대학 자체의 지원 여건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다. 2010년 1월,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 인상에 제약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다. 국제캠 김성수(우주과학) 교무처장은 등록금 인상 제약이 이어지며 학교가 2013년 무렵 긴축재정에 들어

갔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인건비와 경상비 같은 필수 지출을 유지하는 가운데 추가 교육활동에 쓸 여력이 줄었다며 “후마 초기와 그 이후는 사실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설명했다.

최근 후마 관련 국고지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교육혁신사업단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이어지는 3주기 대학혁신지원사업의 후마 관련 예산은 2025년 약 1.14억 원에서 2026년 약 10.92억 원으로 늘었으나, 2026년 사업에는 대형강의실과 일반강의실 환경 개선 사업 2건이 포함됐다. 그 외 지원 항목인 사회혁신학기제(1,760만 원)와 백일장(1,050만 원) 등 교육 프로그램 예산은 2,810만 원으로 전체의 약 2.6%다. 7개 프로그램에 약 1억 1,428만 원이 배정됐던 지난해의 4분의 1 수준이다.

교육혁신사업단 강규민 과장은 “2025~2026년 후마 관련 지원 총액은 12억 원 정도로 같은 기간 사업비의 약 5%에 해당한다”며 “관련 사업의 목적과 교육적 효과가 명확하고 사업비 집행 지침에 부합하는 경우 가능한 범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후마 교수진은 ‘깜깜이 계획’이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얼마를 지원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리 계획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국제캠 대학영어 여승주(언어학) PD교수는 “지원 가능 예산이 확정된 상태가 아닌, 얼마 지원이 가능한지도 모르고 계획을 세우는 거라 (사전) 계획 자체가 불가능한 시

스템”이라고 밝혔다.

김 부학장 역시 후마 교육 프로그램 ‘사회혁신학기제’ 준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했다. 학생을 미리 선발하고 숙소와 차량 등을 예약해야 하지만,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김 부학장은 “이걸 교비가 아니라 국비로 지원해주니까 매년 줄지 안 줄지가 불확실하다”며 “사회혁신학기제 담당 교수님은 숙소 등을 우선 사비로 예약하기도 했다”고 토로했다.

3년 반 새 전임교원 70→60명
충원 요청에도 채용은 제자리

교육을 맡을 전임교원이 줄고 있다는 점도 큰 문제다. 양캠 후마 행정실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2학기 기준 전임교원 수는 서울캠 ▲34(2023) ▲33(2024) ▲31(2025) ▲31(2026)명, 국제캠 ▲36(2023) ▲34(2024) ▲31(2025) ▲29(2026)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제캠 강사는 97명에서 121명으로 늘었다. 서울캠 강사는 192명에서 191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겸임교수가 6명에서 15명으로 증가했다.

전임교원의 강의 담당 비중도 낮아졌다. 대학알리미 공시에 따르면 국제캠 후마의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2023년 1학기 45.8%에서 2025년 1학기 37.9%로 감소했다. 서울캠 역시 39.0%에서 35.1%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강사의 담당 비율은 국제캠 36.8%에서 42.8%, 서울캠 50.4%에서 52.6%로 높아

졌다.

후마는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본부 측에 충원을 요청하고 있었다. 행정실에 따르면 충원을 요청한 전임교원 수는 합계 20명분이지만, 본부로부터 TO 배정 승인을 받은 것은 5명분에 그쳤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인원은 없었다. 여 교수는 “전임교원이 나가고 줄어드는 상태에서는 교과에 관해 의논할 대상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강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더라도 교과 방향을 정하고 운영하는 데는 전임교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 교원의 퇴임 이후 후마 교육을 누가 책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서울캠 SW교과 정화영(컴퓨터공학) PD교수는 “정년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1년 안에 후임이 들어와야 그동안 같이 일하면서 논의할 부분 논의하고,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며 “그동안 신규 채용이 없다가 퇴임 이후로 갑자기 뚝 뺏아놓으면 신입교원은 맥락도 모를 것”이라 말했다.

고령화 인지하고 있지만
충원 시점은 논의 필요

본부는 후마 교원 부족에 대해 “결과적으로 이때까지는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긴 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교원 충원을 대학 전체의 자원 배분 문제로 보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최근 본부 채용 기준은 7개 중점 분야에 집중해 전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다른 분야를 전혀 안 뽑는 것은 아니지만, 중점 분야가 많은 부분 이공계에 집중돼 있는 것은 사실”이라 밝혔다.

다만 중점 분야를 제외하고는 학생 대비 교원 비율이 낮은 전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처장은 “교양은 학생 수 대비 교양전담 교원의 수가 우리학교가 국내 1등은 아닐지 몰라도 거의 최상위권”이라며 “교양보다는 학생 수 대비 전임교원 수 비율이 좋지 않은 전공에 TO를 우선적으로 드리게 된 것”이라 말했다.

본부 또한 후마 교원의 고령화에 관해서는 공감대를 내비치는 상태다. 김 처장은 “현재 후마 교원 연령이 상당히 높고 대부분 정년이 10년 안 남은 분들”이라며 “본부도 후마에 향후 5년, 10년, 15년 이런 장기 발전 방향이나 인력 운영 계획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고, 본부에서도 같이 결정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월세에 가려진 ‘깜깜이 관리비’, 대학가 원룸의 사각지대

김가빈 기자 woo289504@khu.ac.kr
조천호 기자 cjsgh1026@khu.ac.kr

“관리비가 어디에 쓰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캠 후문 근처에서 2년째 거주하고 있는 조상연(자율전공학 2025) 씨는 매달 납부하는 8만 원의 관리비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알지 못한다고 털어냈다. 조 씨는 “월세만으로도 지출이 큰데 별도로 내야 하는 관리비도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제 2의 월세’ 관리비 정작 산정 기준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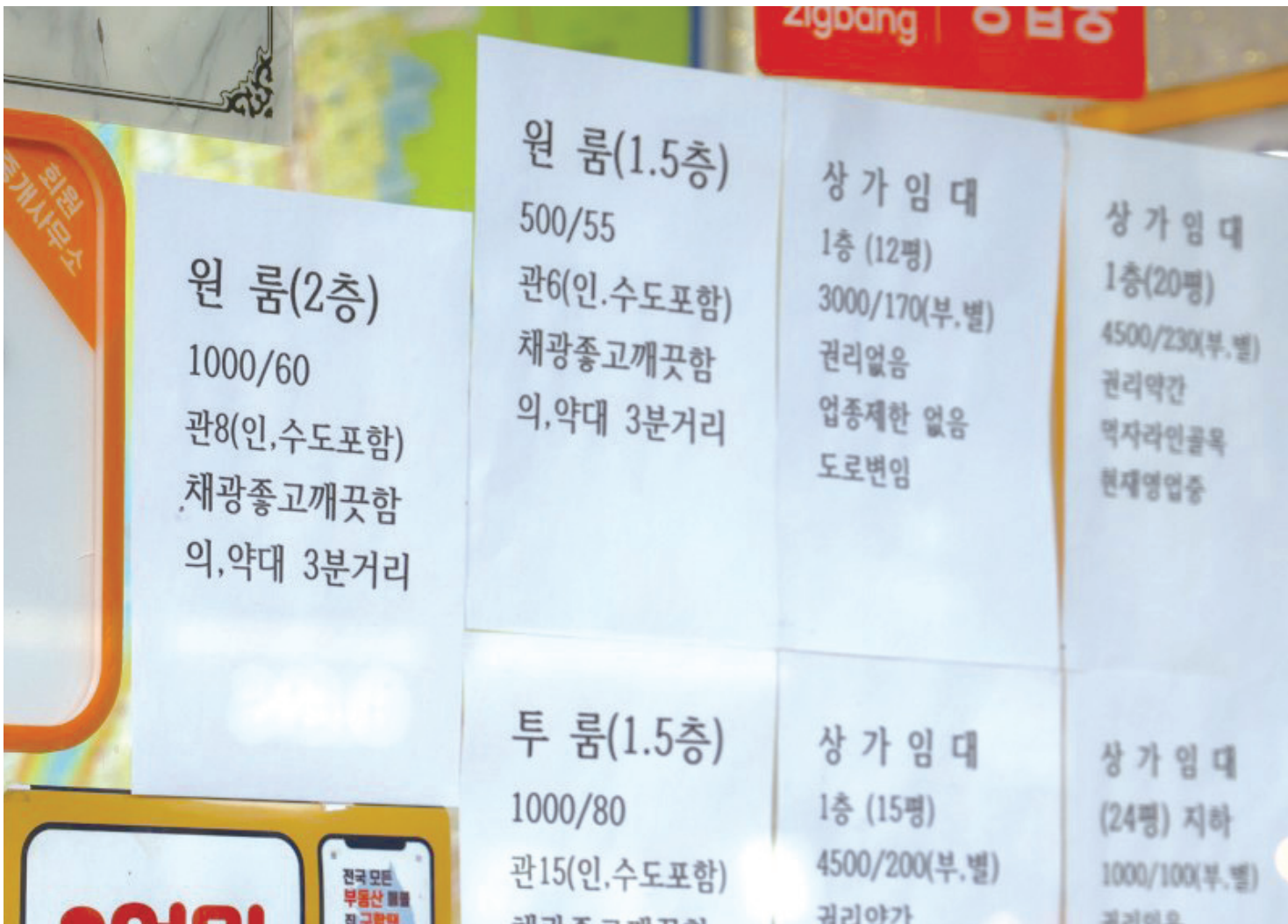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보증금 1,000만 원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동기간 대비 7.7%, 관리비는 10.9% 상승했다.

우리학교 서울캠의 경우 지난해 63.4만 원이었던 평균 월세는 올해 64만 원으로 0.9%, 관리비는 8만 원에서 8.2만 원으로 2.5% 증가했다. 월세와 비교해 관리비의 상승 폭이 더 큰 셈이다.

브라운홀즈공인중개사사무소 오인혁 대표 공인중개사는 “최근 학교 주변 원룸의 관리비는 평균 월 10만 원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며 “임대인마다 다르겠지만 관리비는 주변 시세에 맞춰 정하는 경우가 8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국제캠 인근에서도 원룸 관리비 부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신문이 지난 2일 ‘다방’에 등록된 국제캠 인근 원룸 매물을 조사한 결과, 관리비가 기재된 118개 매물의 월평균 관리비는 약 6.31만 원이었다. 망고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최희원 대표 공인중개사는 “국제캠 근처 원룸 평균 관리비는 약 5만 원 정도”라며 “엘리베이터 같은 전기 시설이 있는 곳은 공용 관리비로 10만 원까지 오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대학생들이 매달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박호연(응용영어통번역학 2024) 씨는 “매달 11만 원의 관리비를 낸다”며 “임대인에게는 건물을 관리하는 비용이라는 설명만 들었을 뿐 정확한 내역은 안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매달 관리비로 9만원을 납부하고 있는 장예성(스페인어학 2023) 씨는 “관



문제는 대학생들이 매달 적지 않은 관리비를 납부하면서도 산정 기준이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사진=김가빈 기자)

리비에 당연히 냉·난방 비용이 포함될 줄 알았는데 별도였다”며 “학생 입장에서 관리비에 냉·난방비까지 따로 내면 꽤 큰 돈이기 때문에 부담으로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가 원룸 관리비 규제 없는 ‘깜깜이 관리비’

대학가 원룸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공동주택관리법’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달리 관리비 산정 방식과 사용 내역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는 의결 사항이다. 제93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비 사용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이나 명령을 통해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25조는 관리인에게 관리비의 청구·수령·관리 행위를 담당할 권

한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의 운영위원 김희성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는 달리 대학가 원룸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관리비에 관한 규정이 없어 임대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며 “대학가 원룸은 임대인이 관리비의 청구와 집행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 이를 관리·감독·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예원(문화엔터테인먼트학 2024) 씨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은 오래돼 관리비 역할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며 “기존에는 관리비에 인터넷 비용도 포함됐는데 이번 달부터 갑작스럽게 인터넷을 따로 설치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결국 대학가 원룸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에 따라 관리비가 책정되는데, 단기 계약과 임대인의 우월적 지위 등으로 임차인의 협상력이 약하다”며 “이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관리비 책정이나 관리비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행 되어 버린 ‘깜깜이 관리비’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관리비의 기준 및 내역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변호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를 중개할 때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확인·설명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 체결 후 관리비 내역을 보고 실제 관리비로 징수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 오 공인중개사는 “관리비는 임대인이 산정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떠한 이유로 해당 금액의 관리비를 산정한 것인지 중개사 입장에서는 임대인에게 세부 산정 방식을 문의하기 애매한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비의 세부 항목이나 근거를 꼼꼼히 따지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장 씨는 “처음 월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관리비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관행으로 받아들였다”며 “매달 관리비를 낼 때 세부 명세서나 영수증은 따로 확인하지 않고 납부하라고 하면 낸다”고 말했다. 김재훈(경영학 2021) 씨 역시 “관리비는 산정 기준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월세와 함께 총액만 송금한다”며 “관리비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따로 물어본 적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임대차 법제 안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존재하는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을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마련한다면 세대수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관리비 내역을 볼 수 있는 권리일 뿐이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정기적 공개의무, 감사, 자자체 감독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에 더해 관리비에 대한 검증, 자자체의 감독 등 추가적인 보완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 문화



경희사이버대 신봉섭 교수는 “구독이 생활비의 일부로 자리 잡을수록 실제 사용량에 비해 지출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진=신정빈 기자)

콘텐츠 넘어 생활까지 대학생 일상 파고든 구독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신정빈 기자 wjdqjs2002@khu.ac.kr〈문화 트렌드 연속 기획〉
⑬ 구독 경제

청년 · 학생 문화 트렌드 열세 번째 기획으로 우리신문은 대학생의 일상에 자리 잡은 구독서비스를 살펴본다. OTT · 음원과 같은 콘텐츠에서 시작한 구독은 배달과 생필품 배송, 세탁과 쓰레기 수거 등 생활 영역으로 넓어지고 있다. 특히 혼자 생활하는 대학생에게 구독은 콘텐츠를 즐기는 수단을 넘어 일상의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되고 있다. 우리신문은 대학생들이 무엇을 구독하고, 구독이 이들의 생활방식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들여다봤다.

콘텐츠 넘어 실생활 속으로
일상 곳곳 스며든 구독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독 경제는 청년층에게 익숙한 소비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1인가구 대학생들 중심으로 세탁과 쓰레기 처리부터 식사, 생필품 정기배송까지 일상 속 ‘생활형 구독’으로 영역이 넓어지고 있다.

이번 학기부터 자취를 시작했다. 허씨는(미디어학 2026) 씨는 쓰레기 수거 서비스 ‘오늘수거’를 구독했다. 업체가 제공한 전용 봉투에 일반 쓰레기와 재활용품을 구분 없이 담아 문 앞에 두면, 정해진 요일에 방문한 수거 매니저가 처리해주는 방식이다. 허씨는 “자취하는 곳에 분리수거장이 없어 쓰레기 처리가 불편해 구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박지은(국어국문학 2022) 씨는 자취방의 작은 세탁기로 부피가 큰 빨랫감을 처리하기 어려워 2년 전부터 런드리고를 이용하고 있다. 박씨는 “두꺼운 겨울 이불 등은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워 주로 런드리고를 이용한다”며 “무거운 이불을 들

고 빨래방을 오가지 않아도 되고 집 앞까지 배송해 줘 편하다”고 말했다. 런드리고는 2019년 서비스를 시작한 뒤 이용 고객이 125만 가구를 넘었고, 이용자의 36%가 1인 가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물을 자주 마신다는 지예은(미디어학 2026) 씨는 5개월 넘게 생수 정기배송을 이용하고 있다. 매번 주 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정기구독을 선택했다.

지 씨는 “정해진 날짜에 현관문 앞까지 배송돼 물이 떨어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생필품 구독은 시간을 아끼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계속 신경 써야 할 일을 하나 줄여준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크다”고 말했다.

1인 가구 증가
‘생활형 구독’ 시장 확대

대학생이 생활 구독을 이용하는 이유엔 1인가구의 증가와 시간빈곤이라는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시간과 노력을

줄여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하는 이른바 ‘편리미엄(편리함+프리미엄)’ 소비가 생활형 구독의 수요를 부르고 있다. 실제로 허 씨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는 확실한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박 씨 역시 “자취하는 입장에서 생활형 구독 서비스는 편의와 시간을 사는 느낌이 크다”며 번거로운 과정을 대신해 준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023년 리서치 기업 트렌드 모니터의 「시간 절약 서비스(웨이팅, 가사대행 앱 등) 관련 U&A 조사」에 따르면, 20대 응답자의 88%는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큰 자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시간이 곧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82.4%, ‘시간을 아껴주는 서비스에 관심이 간다’고 답한 비율은 20대에서 64.8%로 전 문항에서 20~50대 가운데 20대가 가장 높았다.

경희사이버대 신봉섭(경영학) 교수는 “대학생 1인 가구는 학업과 아르바이트, 취업 준비 등을 병행하느라 가사에 투입할 시간과 노력이 제한적이고, 다인 가구보다 소비량이 적고 공간도 좁아 소량·정기배송의 효용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말했다. 소비에 대한 인식 변화도 또 다른 배경으로 꼽힌다.

신 교수는 “과거에는 상품을 구매해 소유하는 것이 소비의 기본이었다면, 이제는 필요한 서비스를 일

정 기간 이용하면서 그 과정에서 얻는 ‘편의’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학생과 청년층에서 월정액 방식은 초기 지출 부담을 낮추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한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하나둘 쌓이는 구독료
편리함에도 관리가 필요하다

구독이 일상 곳곳으로 확대되면서 편리함의 대가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여러 구독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이른바 ‘구독 피로(subscription fatigue)’도 중요한 소비자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월 단위로 결제되는 구독은 한 번에 지불하는 금액이 비교적 작아 부담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하면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가 늘어난다. 구독 서비스가 지나치게 많아지고 복잡해지면 소비자는 서비스 자체뿐 아니라 여러 결제와 이용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느끼게 된다.

쿠팡와우와 티빙 등 6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박 씨는 한 달에 약 8만 원을 구독료로 지출한다. 박 씨는 “이제는 구독료가 전기·가스비처럼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으로 느껴진다”며 “하나씩 결제할 때는 금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개가 모이니 경제적인 부담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적 부담을 넘어 해지 과정 등의 구독 관리 과정이 번거롭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를 해지하고 전체 구독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구독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무분별하거나 지나친 구독서비스는 자칫 대학생에게 더 큰 경제적 타격과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구독이 생활비의 일부로 자리 잡을수록 실제 사용량에 비해 지출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숙명여대 서용구(경영학) 교수는 앞으로의 생활형 구독 시장이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편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 교수는 “콘텐츠와 달리 생활형 서비스는 방문 인력, 이동 거리, 지역별 수요 밀도가 수익성을 좌우한다”며 “배송·방문 인력의 비용과 서비스 품질까지 감안한 가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가 체감하는 편의뿐 아니라 약속한 품질과 시간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운영 능력, 즉 고객이 매달 다시 지불할 이유를 만들어 내는 능력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40년 만에 문 열리는 중앙도서관 3층 보존서고 학습·휴게 공간으로 전환

신정빈 기자 wjdqls2002@khu.ac.kr

【서울】중앙도서관 3층 보존서고와 라운지와 세미나실을 갖춘 약 100석 규모의 학습·휴게 공간으로 바뀐다. 도서관은 오는 11월 중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해 내년 봄 새 공간을 선보일 계획이다.

서가가 배치된 '서가 라운지'에서는 자료를 찾거나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상과 의자가 중심인 '열람 라운지'에서는 개인 학습을 할 수 있다. 안쪽에는 세미나실 2곳이 들어선다. 좌석에는 콘센트가 설치되고, 자료 검색용 PC도 갖춰진다. 책을 직접 찾아 읽고 빌리는 것은 물론, 개인 학습과 세미나, 휴식 기능까지 더해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운영시간은 중앙자료실과 같이 학기 중 오후 9시까지로 하는 것이 기본 방침이며, 시험기간에는 학습공간 이용시간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술연구지원팀 최윤희 팀장은 "그 룹스터디나 화상회의·토론, 휴게공간에 대한 학생 수요는 많은데 제한된 면적 안에서 새 공간을 마련하기 어려웠다"며 "접근성이 좋은 3층 보존서고의 장서를 중앙도서관 내 다른 서고와 연계열람도서관 제2보존서고로 옮기고, 폐쇄돼 있던 공간을 학생들에게 개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장소영 팀장은 "기존 학생 이용공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서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비워 새로운 학생 이용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휴공간과 야외 테라스도 안전 진단을 거쳐 휴게공간으로 바꿀 예정이다. 최 팀장은 "지금은 버려져 있는 공간이지만 안전 진단을 거쳐 학생들이 바깥 공기를 쉼터 리프레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3층 로

비에는 원형 테두리 안쪽을 따라 앉을 수 있는 벤치형 좌석이 놓이고, 여자와 장실도 새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번 공사는 중앙도서관이 2025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 중인 '혁신 공간 창출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의 2차년도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책을 보관하는 데 쓰이던 도서관 공간을 학습·협업·휴식이 가능한 이용자 중심 공간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 1차년도에는 의학계열도서관에 제2보존서고를 마련하고 약 35만 권의 장서를 재배치했으며, 내년 3차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협업·토론 공간 등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장 팀장은 "입찰과 낙찰 등 행정 절차가 남아 있어 정확한 착공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공사는 내년 2월 안에 모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리모델링 공사는 내달 시행될 예정으로 도서관 이용에 일부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기말고사 기간에도 공사 구역과 맞닿은 1·2층 일부에서 낮 시간 소음과 진동이 예상된다. 최 팀장은 "기말고사 기간 일부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어 오후와 야간에는 학습공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단과대에도 학습실과 강의실 추가 개방을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팀장은 "3층 복도와 화장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만 공사는 구역별로 진행되고, 중앙자료실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겨울방학 중 임시로 옮겨둔 장서를 재배치할 예정이어서 2~3주가량 일부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도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도서관은 공사 일정이 확정되면 홈페이지와 도서관 앱, 학생회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① 조류 표본을 관람하는 학생들(1960년대 초반) ②자연사박물관과 '경희의 역사' 모자이크

자연과 우주 그리고 경희

남기원(경희기록관)

경희의 유산 ②『자연사박물관』

1978년 6월 13일, 한 건물의 개관식이 있었다. 조영식 총장을 비롯한 교내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당시 대통령의 장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장경순 보건사회부 장관,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 등이 참석할 정도로 큰 행사였다. 이 행사는 경희대 자연사박물관의 개관식이었다.

자연사박물관은 서울캠퍼스 후문의 중정(中庭), 흔히 말하는 '동의마당'의 동쪽 면에 자리하고 있다. 1층부터 6층에 이르는 총 460평 규모의 전시실에서는 암석과 화석, 포유류, 조류, 곤충, 수생생물, 식물의 순서로 지구 생태환경을 살펴볼 수 있다. 수장고에는 전시에 선보이지 않은 표본 약 10만 점이 보존되고 있다. 1971년 우리나라에서 멸종된 마지막 뒷새 황새 수컷을 비롯해 크낙새와 종여 등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하는 희귀 표본도 보유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의 역사는 사실 1978년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보유했던 표본들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관련 분야 교수와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된 것들이며, 대학 축제 등의 행사 때 전시실을 꾸며 일반 관람객들에게 선보이기도 했으니 말이다.

얼핏 보면 전시 기능만 두드러져 보이지만, 자연사박물관은 대학 기관의 특성을 살려 다

양한 연구,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 표본 수집·제작·박제, 해외 및 국내 기관들과의 교류, 후마니타스칼리지 연계 수업, 지역주민과 학생 대상 견학 프로그램 등이 연중 이어진다. 타 대학과의 연합 연구도 활발하다. 최근 충남대, 제주대와 함께 대학 캠퍼스에 서식하는 식물을 조사 연구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해 2026년 10월 12일부터 "세 도시의 캠퍼스, 초록을 읽다"라는 전시회를 개최한다.

자연사박물관의 주된 활동은 지구 생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 대학은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의미를 부여했던 것 같다. 전시실을 오르내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벽화가 그 증거다.

1~2층 계단 벽화에는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지구의 역사, 생명의 발생과정을 묘사했다. 3~4층에서는 인간이 출현한 이후 자연환경에 맞서 문명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5~6층 계단 벽화다. 이곳에서는 인류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인간중심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경희의 이상을 담았다. 경희의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 이념을 우주, 지구, 인류문명의 차원에서 해석하도록 구성된 것이다.

이제 건물 밖으로 나가 외벽을 보자. 자연사박물관을 마주하고 서면 오른쪽에 '경희의 역사'라는 제목의 벽이 보인다. 1953년부터 2050년까지 경희역사 연표가 위에서 아래로 새겨져 있고, 해당 연표에는 그 시

대 경희가 이룬 주요 성취들, 이를테면 본관 완공, 대학주보 창간, 제2차 세계대학총장회 개최, 평화의 전당 건설 등이 색깔 타일로 모자이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긴다. 왜 교내의 수많은 건물 중에서 자연사박물관 외벽에 '경희의 역사'를 새긴 것일까? 어디에도 그 이유를 밝혀놓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추측의 영역임을 미리 알려둔다. 필자의 생각에는 우주, 지구(=자연), 경희를 연결지어 해석하는 경희의 철학이 그 바탕에 있는 것 같다. 경희는 우주의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어 서로 의존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철학에 기초하여 세계를 이해한다.

즉, 자연사박물관이 다루는 지구 생태의 변화와 발전은 우주 서사의 일부이며, 인류문명 역시 그 메커니즘 안에서 작동한다. 경희의 역사 또한 우주 서사의 한 부분으로 작동하고 있기에, 그 의미는 우주적 차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처럼 경희의 역사를 우주의 탄생으로부터 지구 생태의 변화 가운데 자리매김하게 되면, 결국 경희의 역사를 표현할 최적의 공간은 우주와 자연을 품은 자연사박물관이 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 혹은 생태환경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체감하며 살아간다. 인류의 미래가 우주와 자연 그리고 21세기 문명의 향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다. 1978년에 이미 우주와 자연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한 우리 대학의 통찰에 새삼 놀라게 된다.



3층 열람라운지 조감도. 3층 열람라운지는 책상과 의자를 중심으로 개인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사진=중앙도서관 학술서비스팀 제공)

아시안게임 종합마술 동메달 이동화

“다음 무대는 2030 아시안게임”

이지원 기자 dlwidnja0308@khu.ac.kr

#이동화(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승마 종합마술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며 종합마술 역대 최연소 메달리스트가 됐다. 말과 함께 국가대표의 꿈을 이뤄낸 이 선수를 만나 아시안게임 메달 획득의 과정과 선수로서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말과 함께 달려온 국가대표의 길

이동화(스포츠지도학 2026) 선수와 승마의 첫 만남은 우연에 가까웠다. 12살 무렵 취미로 승마를 즐기던 부모님을 따라 승마장을 찾은 것이 시작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취미로 타자는 생각이었지만 타다 보니 재능도 보이고 이 길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중학교 2학년부터 전문적인 훈련을 한 이 선수는 이후 회장배 전국 승마대회와 전국 종합마술 선수권대회 등 여러 전국대회에서 잇따라 1위를 차지하며 승마에 두각을 드러냈다. 그는 “전문적으로 배우자마자 대회에서 입상하기 시작하고 입상했을 때의 희열감으로 승마라는 길을 선택해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선수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수차례 낙마로 어깨가 탈골되고 쇄골이 부러지는 부상도 있었다. 그때마다 힘이 된 것은 부모님이었다. 특히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정점은 찍어봐야 하지 않겠냐”는 부모님의 말은 이 선수가 다시 말에 오



대한민국 승마 종합마술 대표팀 선수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맨 오른쪽이 이동화 선수.

(사진=이동화 선수 제공)

르는 계기가 됐다.

함께 경기를 뛰는 말을 ‘가족’이라고 표현한 이 선수는 “시합에서 잘하면 당근도 주고 못하면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말과 같이 성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동메달보다 값진 순간 아시안게임이 남긴 것

이 선수는 지난해 18살에 국가대표 상비군으로 선발됐지만 국가대표 선발에는 4점이 부족했다. 이후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MER)을 갖추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프랑스에서 훈련하며 말과 호흡을 맞췄다. 올해 3월에는 이탈리아 CCI2*-L 대회에서 1위를 차지했고 5월 아시안게임 국가대표로 최종 선발됐다. 6~7월에는 홀로 프랑스에 머물며 훈련을 이어갔다. 이 선수에게 아이

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은 ‘인생에서 가장 큰 경기’였다.

이 선수가 출전한 ‘종합마술’ 종목은 3일간 진행되는 마장마술과 크로스컨트리, 장애물 경기 성적을 합산해 순위를 가린다. 이 선수가 가장 자신 있는 종목은 자연 지형을 달리며 다양한 장애물을 넘어 제한 시간 안에 완주하는 크로스컨트리다. 반면 정해진 동작의 정확성과 표현력을 평가받는 마장마술은 가장 어려운 종목이었다. 이 선수는 “마장마술은 예술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하는데 저에게 어려운 종목 같다”라며 웃어 보였다.

이 선수는 첫날 마장마술에서 기대만큼의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분위기가 뒤집힌 것은 둘째 날 크로스컨트리였다. 출발 직전 스타트 박스에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고 카운트 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긴장감은 최

고조에 달했다.

이 선수는 전날 태풍으로 인해 많은 비가 내려 쉽지 않은 코스에서도 감점 없이 경기를 마쳤다. 첫날의 부진을 만회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이 선수는 “비가 많이 와서 감점 없이 들어오는 게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무감점으로 피니시 라인을 넘는 순간 손을 흔들며 세리머니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결국 그는 종합마술 단체전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선수는 “극적으로 둘째 날 순위를 역전해 동메달을 따다 보니 아직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며 “이번에 종합마술 역대 최연소 메달을 기록해 더욱 값진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학교 학생이자 국가대표 더 높은 곳을 향해

국가대표와 대학생으로서 일상을 병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한국에 있을 때는 오전에 승마장에서 훈련한 뒤 오후에는 학교로 향하지만 해외 훈련과 대회로 학교를 비우는 날도 많다.

종합마술은 국제대회 참가에 필요한 자격인 MER(Minimum Eligibility Requirements)을 국내에서 획득할 수 없어 유럽 대회에 출전해야 한다. 이 선수 역시 아시안게임을 준비를 위해 작년 8월부터 한국과 프랑스를 오가며 훈련을 이어갔다.

새내기로서 평범한 대학생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특히 동기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3~4월에도 해외 훈련과 대회로 학교를 자주 비워야 했다.

그는 “초반에 친구들이랑 많이 친해져야 하는데 3, 4월에 학교를 못나오다 보니까 조금 걸들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운동선수 출신 교수들이 많은 체육대학의 환경은 선수 생활에 힘이 됐다. 이 선수는 “체육대학 교수님들도 과거에 모두 운동선수였다 보니 선수로서 조언을 많이 해주셨다”며 “이를 되새기면서 시합장에서 멘탈 관리를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아시안게임 동메달로 하나의 목표를 이뤘지만 도전은 끝나지 않았다. 이 선수는 당분간 국내 종합마술 대회에 출전하며 기량을 이어갈 계획이다. 다음 목표는 4년 뒤 카타르 아시안게임이다. “한국에서 종합마술 대회를 몇 번 더 나가고 2030 카타르 아시안게임까지 나가려고 한다”며 “그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12살 부모님을 따라 처음 말에 오른 소년은 어느덧 태극마크를 달고 아시안게임 시상대에 올랐다. 동메달을 목에 건 지금도 이 선수는 다시 말 위에서 다음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다. 4년 뒤 카타르에서 한층 더 성장한 이동화 선수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아이스하키 U-리그 초반 아쉬운 성적

오채원 기자 chaewonnida@khu.ac.kr

【국제】우리학교 아이스하키부가 ‘2026 KUSF 대학 아이스하키 U-리그’ 개막 후 두 경기에서 모두 패했다.

올해 U-리그에는 우리학교를 비롯해 고려대, 연세대, 광운대 등 네 대학이 참가한다. 우리학교는 지난

달 22일 고려대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첫 경기에서 고려대에 0-9로 패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광운대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광운대전에서도 4-6으로 패했다.

광운대전에서는 이도윤(스포츠지도학 2026)이 두 골, 임준서(스포츠지도학 2025)가 한 골과 한 어시스트, 이한(스포츠지도학 2025)이 한 골을 기록했다. 우리학교는 1피

리어드를 2-3으로 마쳤으나, 2피리어드에서 한 골을 넣고 두 골을 내주며 점수 차가 벌어졌다. 마지막 3피리어드에서는 양 팀이 한 골씩 주고받으며 경기를 마쳤다.

신의식(체육학 1990) 감독은 “경기 인원이 부족하지만 각 선수의 기량이 우수해서 팀 전술에 해결책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도윤 선수는 “최대한 악착같은



우리학교는 지난 22일 고려대 아이스링크장에서 열린 시즌 첫 경기에서 0-9로 패했다. (사진=아이스하키부 제공)

플레이와 좋은 기회를 많이 창출해내는 플레이를 하고 싶다”고 전했다.

우리학교는 U-리그와 함께

‘2026 LG 코리아 아이스하키리그’에선 일정도 소화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vapor U19에 2-10, 지난 6일 고려대에 1-6으로 패했다. 지난 7일 마지막 경기에선 광운대에게 4-7로 패배하며 탈락했다. 두 대회를 병행하는 가운데 신 감독은 “U-리그 2라운드 경기와 LG 코리아 조별리그에서 부상자가 안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학교는 오는 17일과 21일 연세대와 U-리그 맞대결을 펼친다. 이어 27일 고려대전, 30일 광운대전을 끝으로 U-리그 일정을 마무리한다.

사설

후마의 '다음' 책임질 구조 세워야

5회차에 걸친 '후마니타스 15년 을 묻다' 특별기획 2부를 마무리한다. 취재 과정에서 거듭 들은 말은 "예전에는"이었다. 같은 교과를 맡은 교수들은 방학마다 모여 교재를 함께 공부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워크숍이 열렸으며, 대학장과 양캠 학장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그 기억에는 좋은 교양교육을 함께 만들어간다는 믿음이 담겨 있었다.

취재하면서 알아내고 싶었던 점은 그 협력이 왜 약해졌고, 이를 이어갈 체계는 왜 자리 잡지 못했느냐는 것이다. 출범기의 열의를 오늘날의 구성원에게 그대로 요구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교육의 방향을 함께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수업 운영부터 평가방식, 교육과정 개편까지 살펴보면 확인한 것은 후마 내부에서도 문제를 인

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평가 방식과 관련한 논쟁은 출범 때부터 이어져 왔고, 교수·과목별 편차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세 차례의 교육과정 개편도 취지와 현장 사이의 간극을 충분히 좁히지 못했다.

개선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양캠 후마와 본부가 한자리에 모여 실제 개편을 이끌었던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현안이 끝나면 논의의 자리는 흩어졌고, 조정은 다시 몇몇 보직자의 재량에 맡겨졌다. 이견을 조정하고 이행을 살필 상설 체계가 남지 않은 것이다.

양캠을 아우르는 대학장 자리는 2015년 이후 11년 넘게 비어 있고, 국제캠 학장직도 현재 공석이다. 예산은 정해진 몫 없이 해마다 요청하고 기다려야 하며, 교과 운영을 함께 논의할 전임교원은 줄고 있다.

최근 일부 본부 지원 예산과 후마 관련 국고지원이 이전에 비해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단순히 액수가 늘어났다고 해서 후마를 둘러싼 예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학기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재원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남아있는 정년을 앞둔 전임교원들이 대거 퇴임한 이후에 후마 교육을 책임질 사람들도 함께 있어야 한다.

후마는 타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서로 다른 생각을 토론하며 공동체의 가치를 배우는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런 후마가 정작 내부의 이견을 꾸준히 논의하고 합의할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것은 유감이다.

이는 결국 학생의 피해로 이어

질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이미 같은 과목을 수강하면서도 전혀 다른 수업을 경험하고 있다.

물론 캠퍼스별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각 교수가 선택하는 수업 방식도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차이를 어디까지 인정하며 어떤 교육목표를 함께 지킬지 논의하는 과정이 선행됐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한다.

본부와 양캠 후마는 하루빨리 어떤 것을 함께 결정하고, 어떤 것을 자율에 맡길지부터 합의할 필요가 있다.

대학장 선임이든 상설 협의체 구성이든 그 합의를 지속할 책임주체와 권한을 조속히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기 교육과정 개편에 방향뿐만 아니라 이를 실행할 교원과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중장기 계획까지도 함께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시봉

오독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추석 연휴, 중학생 사촌동생과 이야기를 나누다 짝짝 놀랐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 육영수 여사가 남편에게 피살됐다는 것이다. 동생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하는 말투였다.

〈암살자들〉을 직접 보고 나니 몇몇 장면이 관객에게 특정 인물을 배후로 의심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제작진은 특정 인물을 사건의 배후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직접적인 지목 여부에만 있지 않았다. 허술한 대통령 경호는 누군가의 도적으로 범행의 길을 열어준 것처럼, 방탄 연설대 장치는 누군가 총격을 미리 알고 준비한 것처럼 보였다. 두 장면이 하나의 이야기 안에 놓이면서 누군가 공격이 가능하도록 돕는 동시에 대통령의 안전은 미리 확보해줬다는 추론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역사 영화에서 상상력은 기록이 남기지 않은 이야기를 채우는 역할을 한다. 기록에 남은 사실만으론 인물의 감정을 모두 보여주지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건의 배후를 짐작하는 장면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작품안에서 둘을 구분할 단서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 단서로 내린 판단은 온전히 관객의 몫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동생의 말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도 비슷하다. 동생은 그 장면을 사실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직 그 시대를 자세히 배우지 않은 학생에게는 영화 속 장면이 수업에서 접하는 설명보다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다. 작품이 역사에 대한 관심을 넓혀주지만 오묘된 사실을 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대학생인 우리도 다르지 않다. 역사 수업을 듣고 시험을 치렀지만, 영화에 나온 내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묻는다면 자신있게 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영화를 봤다는 것과 그 사건을 안다는 것은 다르다. 그 차이를 잊은 채 화면에서 본 이야기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역사관을 형성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공교육에서의 역사 교육도 이러한 판단의 과정을 함께 다뤘으면 한다. 영화 속 장면을 기록과 비교하고, 서로 다른 설명 중 무엇을 믿을 수 있을지 따져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다른 역사 이야기를 접할 때도 스스로 근거를 따져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역사 교육의 역할일 것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납득 가능한 관리비를 향해

관행이 된 관리비

조천호 기자
cjsg1026@khu.ac.kr



매달 월세와 함께 납부하는 10만 원 납짓의 관리비. 나가는 순간에는 분명 부담스럽지만, 송금 버튼을 누르고 나면 이내 잊게 되는 돈이기도 하다. 이번 취재를 위해 만난 학우들 역시 "어디에 쓰이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우리학교 서울캠 인근 원룸의 관리비 상승폭은 월세 상승폭의 세 배에 달했다. 관리비가 '제2의 월세'라고 불릴 만큼 주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납부하는 학생들에게서는 의문보다 체념이 먼저 나타났다. 따져 묻자니 피곤하고, 괜히 까다로운 세입자로 보이고 싶지 않았으며, 1~2년 살다 나갈 방을 두고 임대인과 갈등을 만들

고 싶지 않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취재를 진행하며 이러한 '당연함'을 학생 개인의 무관심이나 안일함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대학가 원룸 대다수는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관리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여기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장에서, 단기 계약을 맺는 청년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현실도 맞물려 있었다.

관리비에 의문을 품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제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적극성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매달 나가는 돈이 아깝지 않은 청춘은 없다. '깜깜이 관리비' 관행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관리비를 투명하게 산정·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부터 갖춰져야 한다. '원래 내는 돈'이란 세상에 없다. 무관심 뒤로 넘겨버리기에는, 매달 청년들의 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빠져나가는 10만 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



만평 내역 알 수 없는 관리비

교시
교훈

문화세계의 창조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신동면 | 편집장 권도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주)에스엠씨엔피

12 사람



“달은 가까운데, 알아갈수록 어렵더라고요.” 달의 자기장을 연구하는 조우인(박사 6기) 씨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를 연구하며 그 안에 숨은 이야기를 쫓고 있다. (사진=조우인 씨 제공)

달을 보는 일에서 지구를 이해하는 일로 다누리와 함께 이어온 탐사의 시간

곽승윤 기자 ksymickey05@khu.ac.kr

공부하는 사람들 ⑦ 조우인 · 우주탐사학과 전공

학부 4학년을 마친 학생들은 취업과 대학원 진학의 갈래 앞에 선다. 이 중 대학원 진학은 ‘연구자의 삶’을 택하는 것이다. 이들이 한 명의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내는 ‘삶’은 개인의 성취인 동시에 사회 공공재가 된다. 대학주보는 이들 ‘공부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일곱 번째 주인공은 우주의 자기장과 달을 연구하는 우주탐사학과 조우인(박사6기) 씨다.

달 내부를 들여다보는 방법 그 끝에서 지구를 바라보다

우주는 인간에게 멀고 신비로운 영역이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밝혀진 것보다 아직 알지 못하는 것이 더 많다. 조 씨가 우주에 매료된

것은 어린 시절부터였다. 어린 조 씨는 멀리 있는 세계에 대한 동경을 넘어, 알 수 없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그 이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겼다. 조 씨는 “어린 시절부터 우주에 대한 궁금증을 품었는데, 이를 단순한 호기심으로 남겨두기보다 직접 들여다보고 싶었다”며 우주탐사학과에 오게 된 계기를 설명했다.

광활한 우주 속 그의 관심이 향한 곳은 ‘달’이었다. 조 씨는 스스로를 “현실적이고 명확하게 정해진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며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직접 관측하고 확인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상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관측이 어려운 블랙홀이나 원형보다 실제 탐사선이 달고,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천체에 더 마음이 갔다. 조 씨는 “블랙홀, 원형 같은 주제들은 깊게 공부하다 보니 큰 호기심이 일지 않았다”고 웃으며 말했다.

달을 연구하게 된 이유를 성격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그 밑바탕에는 어린 시절부터 이어져 온 호기심이 있었다. 한때 인류는 달을 매끄럽고 완전한 구체로 여겼지만, 갈

릴레오 갈릴레이가 망원경으로 관측한 달은 거친 울퉁불퉁함과 골짜기로 가득찬 전혀 다른 세계였다. 이처럼 달은 매일 밤 익숙하게 보는 가까운 천체이면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이 많은 미지의 세계다. 조 씨는 바로 달의 그런 점에 끌렸다. 그는 “오랜 시간 인류의 탐사가 이어졌음에도 달에는 아직 숨겨진 비밀이 무궁무진하다”며 “이러한 달의 매력에 빠져 달을 연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학부 연구생 시절 쏘아올린 ‘다누리’ 다누리가 쏘아 올린 연구자의 길

학부 연구생 시절 경험한 달 탐사선 다누리 연구는 우주과학이 ‘배우는 것’을 넘어 ‘직접 연구하는 학문’임을 알게 해준 계기였다. 조 씨가 처음 연구에 발을 들인 2022년, 우리나라 최초의 달 탐사선인 ‘다누리’가 발사됐다. 그는 연구실에서 다누리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처리하는 작업을 맡았다. 연구경험이 많지 않은 학부생에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달 탐사 데이터를 다

루는 일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참고할 만한 선례도 많지 않았다. 조 씨는 “다누리를 위한 연구를 맡았다는 사실이 당시 큰 부담으로 느껴졌다”며 “논문을 읽고, 부족한 부분을 따로 공부하며 하나씩 데이터 처리 방식을 만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혼자 공부하면서 비로소 능동적인 공부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다누리는 국내 달 탐사의 첫 발을 내딛 ‘패스파인더(개척자)’였다. 조 씨에게 다누리는 조금은 다른 의미를 지닌다. 그는 다누리를 자신과 떼어 놓을 수 없는 ‘메이트’라고 표현했다. 조 씨는 “학부 연구생부터 지금까지 다누리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이어오다 보니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누리와 함께한 경험은 결국 그를 대학원으로 이끌었다. 대학원 진학을 고민할 당시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연구를 하며 느낀 재미’였다. 그 재미는 단순히 공부 자체가 즐겁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서로 다른 별이 만나 거대한 별자리를 이루듯 논문과 관측을 통해 알게 된 지식들이 연결되면서 자신의 이해가 넓어

지는 과정이었다. 조 씨는 “새로운 지식을 하나 얻어서 내가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과정이 연구를 계속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현재 조 씨는 다누리가 보내온 데이터를 활용해 눈으로 직접 볼 수 없는 달 내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태양풍의 영향으로 달 주변의 자기장이 변하면 달 내부에서도 이에 반응하는 유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조 씨는 다누리가 관측한 이 유도 자기장을 분석해 달 내부의 광물 구성, 온도 등을 살펴본다. 조 씨의 연구는 지구를 이해하는 일과 맞닿아 있다. 지구와 달은 형성 초기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 씨는 “달의 내부와 형성 과정을 연구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의 기원과 변화 과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구와 달이 과거에 충돌하면서 발생했다는 게 지배적”이라며 “달은 지구의 초기 모습을 간직한 천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달을 알게 되면 지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끝없는 질문, 너머의 연구

우주 관측 연구는 예상치 못한 것을 마주하는 과정이다. 정교한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실제 관측된 데이터와 어긋나는 순간, 그 차이는 새로운 질문이 된다. 조 씨는 “예상과는 다른 값이 관측될 때 ‘왜 이렇게 나오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며 “기존 연구와 논문을 단서 삼아 새로운 질문에 대한 답을 써내려 간다”고 말했다. 누군가 이미 찾아낸 정답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가 빚어낸 오차를 바탕으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그 답을 찾아가는 것이 조 씨가 하는 연구다.

물론 새로운 진실을 향해 한 단계 전진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연구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면 지치거나 지루함을 느끼기도 한다. 조 씨 역시 “연구가 막히는 순간에는 힘들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모르는 것을 마주하는 것은 당연하며, 스스로 필요한 공부를 찾아 논문을 읽고 지식을 쌓아가는 과정 자체가 연구자의 일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같은 길을 걷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학부와는 다르게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찾아 공부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 생활이 고민된다면 학부 연구생 제도를 활용해보면 좋겠다”는 조언을 남겼다. 조 씨는 학부 연구생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달 연구에 몰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달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조 씨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다”며 “경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을 다른 천체에도 적용해 보고 싶다”고 밝혔다.